

1주년 맞아 다시 촛불 든 광주시민들

광주시민들이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며 다시 촛불을 들었다. 광주 시민들은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이 실현되고, 적폐 청산과 개혁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 혁명 1주년 광주시민대회 추진위원회’는 2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1주년 시민대회를 열었다.

‘적폐 청산, 사회 대개혁, 촛불 헌법 쟁취’를 주제로 열린 촛불집회에는 이날 오후 7시50분 기준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이 모였다.

시민들은 촛불 혁명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다. 촛불이 주는 메시지와 요구를 진화·확장시켜 개혁의 제동이 정책화되길 바랐다.

불의·억압에 저항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나선 점, 공정한 사회체제 구축을 요구한 점, 민심을 외면하는 정권을 끌어내린 점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 정치·언론·사법 개혁, 교사·공무원의 권리 보장, 세월호 참사, 사드 배치와 외교·안보, 양심수 석방, 옛 전남도청 복원, 5·18 민주화쟁과 촛불 혁명의 정신을 담은 헌법 개정과 관련된 발언을 이어갔다.

임주섭 공동추진위원장은 대회에서 “촛불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이른바 촛불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이 같은 성과와 경험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형인 미완의 혁명”이라며 “87년 체제를 뛰어 넘어 국민주권, 국민기본권,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 각계각층의 근본적 변화와 요구를 담아내는 이른바 촛불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촛불 시민혁명이 우리의 추억이 될수는 없다. 오늘 이 자리는 서로에게 축하를 건네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힘으로 세운 정부에 의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문틈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며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시민 자유발언에서는 ‘촛불 혁명의 정신과 동력을 계승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내가 촛불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사진전이 개최됐고, 광주 촛불백서 500면도 무

금남로 2000여명 운집...촛불 성과·과제 공유 “국민 주도 개헌, 적폐 청산 위한 실천” 강조

료 배포됐다.

언론노조 광주·전남 지역협의회가 마련한 KBS·MBC 공영방송 정책상 촉구 서명운동과 ‘언론 개혁

시민 문화제’도 열렸다.

이밖에 농산물 최저가 보장 개헌 촉구 서명 운동 자주 평화 실현 결의대회, 양심수 석방 연서 쓰기,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주먹밥 나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남기는 한 마디 등도 펼쳐졌다.

한편 지난해 10월29일부터 올해 4월15일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21차례의 시국촛불대회에는 57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최남규 기자



‘궁중 골든벨’을 울려라 29일 오후 서울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한국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2017 궁중골든벨 행사에서 전통복장을 착용한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역사 문제를 풀고 있다.

亞문화전당 해외작가전 닷새 앞두고 무산 통보 ‘빈축’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순수 창작물을 엮을 수 있는 연례행사인 ‘ACT(Arts & Creative Technology) 페스티벌’ 개막 닷새를 앞두고 해외 작가들에게 전시 무산을 통보,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전당은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미디어아트 축제인 제3회 ACT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아시아문화전당의 핵심 콘텐츠와 비전을 엮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연례행사 중 하나다.

창제작센터 입주 작가들이 1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창작물과 해외 초청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하지만 개막 닷새를 앞두고 해외 초청 작가들이 취소했다.

전시를 총괄하는 협력 큐레이터와 작품 설치를 담당하는 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해외 초청 작가전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차질이 빚어졌다.

전시를 총괄한 일본인 큐레이터는 시간 부족으로 초청 작가 10명의 작품을 올리기가 불가능하다며 자

국으로 돌아갔다.

결국 문화전당은 개막 닷새를 앞두고 해외 초청 작가들에게 전시를 내년으로 연기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해외 초청 작가전을 담당할 감독과 전체 행사 업무 분장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사 준비가 늦어졌다”며 “작가분들에게 사과한 뒤 해외 초청 작가전은 내년으로 옮기자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당직 의사 먹살잡은 40대 집행유예

병원 응급실에서 집기를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당직 의사의 먹살을 잡아 혼든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복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22일 오후 10시 52분께 전남의 한 병원 응급실에

서 자신의 손에 난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진료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옷을 벗은 채 욕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탁자와 수액 걸이를 집어던진 혐의다.

또 당직 의사에게 달려들어 먹살을 잡아 혼든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춘정 기자

물품 배달했던 회사 침입 강도 30대 구속

과거 택배기사로 일하며 자주 찾았던 회사에 침입, 강도짓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정기적으로 물품을 배달했던 회사의 사장을 둔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류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20분께 광주 북구 한 화공약품 회사에 침입한 뒤 홀로 있던 사장 A(79)씨를 둔기로 위협, 현금 1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3개월 전 택배회사를 그만 둔 류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류씨는 A씨의 목덜미를 잡고 망치를 보이며 “돈만 주면 다치지 않는다”고 협박했으며, 서랍 안에서 돈을 꺼내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2년 전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류씨는 25일 오전 집안 살림이 경매에 들어가자 강도짓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5살 딸과 함께 사는 류씨는 경찰에 “육하는 마음에 순간 질뒀던 선택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업에 종사했던 류씨는 2주에 한 번씩 A씨 회사에 물품을 납품, 차불로 거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류씨는 지병이 있는 A씨가 손가락과 서랍에 든 봉투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점, 60대 이상의 직원들만 근무하고 있는 점을 알게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해안고속도로서 7중 추돌...10명 사상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28일 오후 6시48분께 영광군 불갑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47km 지점(서울~목포 방면)에서 박모(44)씨가 운전하던 1.5t 트럭 등 차량 7대가 연달아 부딪혔다.

이 사고로 박씨가 크게 다쳐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차량 운전·동승자 9명은 부상(1명 중상·8명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이날 사고는 영광터널과 2km 가량 떨어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박씨의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박씨의 트럭을 뒤따라오던 봉고, SUV 차량 등 5대가 연속으로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7중 추돌 사고가 난 이후 차량 3대가 부딪혀 운전자들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50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수신기 버리고 도주

절도 용의자로 특정된 50대 성범죄자 경찰의 탐문 과정에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이 나섰다. 이 용의자는 전남 한 공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52분께 함평군 엄다면 한 주택에서 강모(51)씨가 전자발찌 휴대용 수신기를 놓고 달아났다.

전날 오후 6시57분께 함평 모 은행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탈이 절도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강씨는 주거지에 경찰관이 방문하자 방충망을 찢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과거 성폭력 혐의(2차례 범행)로 6년 간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9년 9월3일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고, 출소 직후인 지난해 3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강씨는 나주시 한 공기업에 계약직(지난달 중순부터 12월4일까지)으로 취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의 채용 과정에 공사 측이 신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강씨는 2개월 전부터 부인과 헤어진 뒤 홀로 거주 중이며, 범행 직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함평군 일대 CCTV를 분석, 강씨의 뒤를 쫓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만약에는 건강검진이 없었거나, 미리 미리 진단 받아서.